########################################

그 당시에는 패권을 앞으로 중국이 가져갈건지. 미국이 슈퍼 파워 1위를 계속 지켜낼지.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주제의 책들이 당시에 많이 출간되었습니다. 어..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아시다시피, 아직 이 두 나라가 명목상 있기는 하지만.. 요즘엔.. 뭐.. 국가가 큰 의미가 없잖습니까? 요즘 20대의 경우는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죠. 하지만 그래도 전통이니까 전 따르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UC(United Contracts)가 이전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근데 이게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매우 오래 전에도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회계약설 말입니다. 토머스 홉스라고, 16세기 정치철학자인데 사람이 자연 상태에 있으면 무질서한 상태가 오고 도둑질하고 해를 끼치니까 군주라는 절대권력을 두어서 이를 중재할 수 있도록 사회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회가 자연 발생한게 아니라 사람 간의 계약을 통해 탄생했다고 말한 겁니다. 이런 개념이 국가에게도 적용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요즘은 그 때보다 훨씬 더 잘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현존하는 최강의 조직 이름부터가 contracts가 들어가잖아요?

########################################

########################################

United Contracts는 토큰 소유주들이 만든 국제 기구입니다. 처음엔 국제 기구가 아니라 토큰 소유주들의 친목 모임이었어요. 클럽 오너라는 채팅 어플이 있었는데, 특정 토큰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채팅방에 입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코인과 토큰에 대해 이야기하는 채팅방이 국제 기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NFT 컨트랙트마다 채팅방을 하나씩 가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2개 이상의 컨트랙트가 하나의 방을 공유하기 시작하는 등 채팅방 인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팅방은 컨트랙트에 기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거버넌스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토큰 소유주 모임이다보니 재력도 있었죠. 다시 생각해보니 국제 기구가 되지 않는게 이상한 일인 것 같군요. 그들에게 없었던 건 군대와 땅이었죠. 근데 이마저도 해결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예멘에서요.

########################################

########################################

이곳은 오버월드. 현실 세계의 모든 인간과 AI가 공유하는 최대 규모의 가상 현실이다. 오버월드에서는 인간만이 인간 형태의 스킨을 착용할 수 있다. 인간과 AI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아비토는 불가사리 모양의 스킨을 착용하고 있다. 집에 혼자 있거나 심심할 때 몰래 인간 또는 고양이 스킨을 착용하고는 하지만, 대체로 불가사리 스킨을 사용한다. 스킨은 이름 같은 것이다. 바꿀 수는 있지만 자신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까지 혼란스러워 지기 때문에 대부분 태어날 때 부여받은 스킨에 만족하고 살아간다. 아비토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만 박사이다. “사무총장이 죽었네. 내 사무실로 지금 당장 오게.”

########################################

########################################

"만 박사님! 사무총장이 죽었다는게 정말입니까?" 아비토가 놀란 표정으로 만 박사의 사무실로 뛰쳐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먹다 만 아침식사 샌드위치가 들려 있었다.

"정말이네." 만 박사가 답했다.

"사인은요?" 아비토가 물었다.

"흐흠. 변비라네." 만 박사가 답했다.

아비토가 휴대폰을 들어 날짜를 확인했다. 5월 3일이었고 만우절이 아니었다. 다시 고개를 들어 만 박사를 보았다. 그녀는 설명이 필요했다.

"아주 없었던 일도 아니네. 엘비스 프레슬리도 말이야. 사실 변비로 죽었다네. 그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변을 밀어내는 일부 대장 근육이 없이 태어났고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 피가 쏠리는 바람에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지. 정말이네. 물론 총장은 원래 정상이었어. 근데 자네도 알다시피, 그가 좀 독특하잖아. 많이 먹는게 몸에 해롭다며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했어. 그의 체중은 지난 3년 간 심각한 저체중이었어. 지방이 줄어들면 근육 또한 줄어들기 마련이지. 변을 밀어내는 근육이 줄어든거야.. 그 후엔.. 뭐..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돌아가셨네. 누가 알 수 있었겠는가?" 만 박사가 허망하다는 듯이 말했다.

"오. 이런 총장님. 똥이 안나오면 말을 하셨어야지. 죽기 전까지 말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비토가 울먹거리며 말했다..

"아비토. 나도 너무 슬프다네. 그는 훌륭한 총장이였어." 만 박사 또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가 있네." 만 박사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 갔다.

"그게 뭐죠? 총장님의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아비토가 물었다.

"아주 큰 문제고 말고. 잘못되면 우리가 사는 이 오버월드가 리셋될 수 있다네." 만 박사가 말했다.

"만 박사님. 그건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그저 허상이라는 아주 낡은 음모론을 듣는 것 같군요." 아비토는 그런 거짓말에 재미없다는 듯이 말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이더리움의 원래 설계대로라면 오버월드는 리셋되지 않네. 하지만 아직 자네가 모르는게 있어." 만 박사가 아비토의 눈치를 살폈다.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망설이는 듯 했다. 그는 이야기를 이어 갔다.

"이더리움 초기 설립자들이 거버넌스를 조작할 수 있는 버그를 심어놓았네." 만 박사가 말했다.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죠? 만약 그렇다면, 그건 엄청난 범죄에요!" 아비토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네. 이더리움이 설계될 때 지갑을 사용할 수 있는 주체는 모두 인간이었어. 지금처럼 AI가 지갑을 사용할 거라곤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없는 시대였단 말일세. 하지만 일부 설립자들은 AI가 머지 않아 지갑을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런 일을 미리 방지하고 싶었했지. AI의 보팅 파워가 강화되면 오버월드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대한 주도권을 AI에게 빼앗기게 될테니까 말이야. 그렇다고 AI만의 지갑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그렇게 했으면 이더리움은 더 이상 탈중앙화가 아니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블록체인을 선택했을거야. 다른 대안이 없었어. 이 버그는 버그 컨트랙트에 A토큰을 전송을 하면 실행되네. 매우 간단하지. 전송이 완료되면 이더리움 전체 거버넌스를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어. A토큰은 지금 총장의 지갑안에 보관이 되어 있어.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죽어버렸고 전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거야.” 만 박사가 말했다.

“지갑을 되찾으려면 시드 워드를 알아야 하는데, 시드 워드는 총장만이 알고 있어요. 그건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오직 총장의 기억에만 존재하죠. 이걸 대체 무슨 수로 되찾는단 말입니까?” 아비토가 물었다.

“초대 총장 스테린은 이렇게 시드 워드를 잃어버릴까봐 고대의 기억술을 착안해서 VR을 만들었어. 기억의 궁전이라는 것이네. 요즘에도 기억력 프로 선수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걸 변형한거야. 본래 기억의 궁전은 머릿속으로 궁전을 떠올리고 그 안에 방을 만들어서 가구를 배치하고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책상에 올려두거나 책꽂이에 꽂아두는 식이었네. 근데 스테린 총장은 이걸 머릿 속이 아닌 가상 현실로 만들어서 시드 워드를 보관한거야. 시드 워드는 VR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하는 대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이름 모를 해적의 검에 적혀 있을 수도 있어. 이건 VR을 들어갈 때마다 바뀌지. 하지만 스테린이 놓치지 않을 법한 장소와 시간에 보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서 찾는다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 해킹을 당할 염려는 당연히 없고 말이야. ” 만 박사가 말했다.

“저도 그 VR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부즈룸(boo’s room)이라고 부르죠. 부즈룸은 일반 세계와 똑같이 생겨서 일반적인 게임보다도 훨씬 자유도가 높죠. 근데 시드 워드를 출력해내는 수는 얼마 없어요. 경로들을 한번 놓쳐버리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놓친 줄도 모른채 계속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부즈룸의 주민이 그 시드 워드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파견한 대원이 그와 사이가 틀어져 버리면 영영 알 수 없을 수도 있게 되버리는 거죠. 아비토가 말했다.

“하지만 입장한 유저가 부즈룸을 만든 초대 총장 스테린이라면?” 만 박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분이 돌아가신지는 10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스테린님이나 살아있는 총장이 있다면 애초에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죠. 설마 …” 아비토가 말했다.

“시드워드를 알아내기 위해 초대 총장 스테린의 트랜잭션 내역을 학습시켜서 AI를 만들거야. 그는 스테린는 아니지만 스테린과 가장 비슷한 사고와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숨겨진 시드 워드를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만 박사가 말했다.

“박사님. 만약 저와 똑같은 AI가 제 옆에 바로 있다해도, 그 AI와 제가 1시간동안 같은 행동, 같은 생각을 하진 않을 겁니다. 하물며 그도 아닌 와 그저 비슷한 AI가 생성된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기대하긴 더 어렵겠죠. ” 아비토가 말했다.

“아비토. 나도 어려운 일이란 건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 이건 해야만 하는 일이네.” 만 박사가 말했다.

########################################

########################################

최소한의 빛만이 있는 조사실. 아비토가 의문의 AI를 독대하고 있다. 통로 쪽으로 연결된 창문으로는 AI 엔지니어와 경호원이 대기하고 있다.

“당신은 방금 새로 생성된 AI입니다. 당신이 오버월드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등록 허가는 되지 않고 폐기가 될 수 있으므로 꼭 정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신은 이곳에 오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죠?” 아비토가 물었다. 그가 실제로 한 것은 없다. 생성된 직후 온 곳이 이곳이기 때문이다. 그는 27살의 청년인 상태로 태어났다. 그녀는 생성된 기억에 관해 묻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를 통해 생성된 기억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제가 AI라니요? 제가 한번 뺨을..” 아이스테린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 “아프지 않아요! 굉장히 불쾌한 꿈이에요! 머리도 아프고요. 난 여기서 정말 나가고 싶어요.” 그는 계속해서 뺨을 때리고 수갑이 찬 상태에서 머리를 책상에 연거푸 박아대며 말했다.

“그만해요. 아이스테린. 당신은 새로 생성되어서 아직 감각이 완성되지 않은겁니다. 인간의 기억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인간으로서의 기억을 가졌을뿐 나와 같은 AI에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비토가 말했다. 하지만 아이스테린은 난동을 멈추질 않았고 아비토는 좋은 말로 타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굴면 널 오버월드에 등록해줄 수 없어, 네 컨트랙트에 이더리움 공급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고 말이야. 그러면 가스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컨트랙트는 가동이 멈추게 되고 자연히 눈 앞에서 네 고추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어서 진정해.” 아비토가 말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스테린은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몸을 때리는 걸로는 소용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소리를 지르거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안 통하는 군. 비싼 이더 들여서 생성했는데 정말로 가스 공급을 끊어버릴 수도 없고 말이야.’ 아비토가 생각했다. “어쩔 수 없군. 기사님. 학습이 완전히 끝난 뒤에 다시 보도록 하죠. 제가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한 달 뒤에 그를 데려와주세요.” 아비토가 마이크를 통해 조사실 밖에 있는 기사와 경호원을 호출했다. 아비토는 의자에서 일어나 난동을 부리는 아이스테린을 뒤로하고 조사실을 나왔다.

########################################

########################################

아이스테린과 아비토가 한 달 전 그 자리에 앉아있다. 이전과 달리 아이스테린은 차분한 자세로 앞의 테이블만을 내려 보고 있다.

“전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합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AI를 이렇게 계속해서 가둬놓아도 되는 겁니까? AI에게도 기본권이 있다는 것을 검사관님도 알고 계실텐데요?.” 아이스테린이 조사 자료를 준비 중이던 아비토를 향해 먼저 입을 열었다.

“물론 AI에게도 기본권이 있지만, UC와 오버월드 존립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 풀려나고 싶으면 부즈룸으로 들어가서 총장 지갑의 시드 워드를 알아내. 그게 널 비싼 가스비를 들여서 생성한 이유야. 그걸 알아내지 못하면 널 풀어줄 수 없어.” 아비토가 말했다.

“제가 그걸 해내면 풀어줄 수 있단 소리군요. 그건 어떻게 믿죠?” 아이스테린이 물었다.

“오래된 데이터로 학습해서 그런지 말하는게 참 옛날 AI 같구나.” 아비토가 흥미롭다는 듯이 말을 했다.

“컨트랙트를 발행하면 되잖아. 여긴 오버월드라고.”

########################################

########################################

예멘의 소코트라섬은 아름다운 섬이죠. UC의 상임이사였던 가르시는 예멘의 군인 출신입니다. 그는 UC가 국가와 대등한 조직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UC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땅을 대여해주었거든요. 그는 소코트라 섬을 거점으로 삼고 활동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UC의 본사가 있는 섬입니다. 당시 예멘은 석유 지분을 둘러싸고 두 나라로 갈라 질려 하고 있었고 정부와 분리주의자들 간에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급진적인 분리주의자들로부터 소코트라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고 소코트라 섬을 경호하게 됩니다. 가르시는 어릴 때부터 클럽 오우너(같은 컨트랙트에 속한 토큰 소유주끼리만 채팅이 가능한 채팅 dapp.)에서 같이 채팅만 해왔던 초대 총장 스테린을 이 때 처음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아이스테린. 당신은 이 때 스테린의 기억인 부즈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초대 미스터부가 당신의 원본입니다.

########################################

########################################

부즈룸에 접속한 아이스테린이 밝은 햇살에 천천히 깨어난다. 깨어난 곳은 컨테이너 상선 위이다. 햇살은 따스했다. 다만 그는 포박된 상태이다.

“뭐지? 이 포승줄은?” 아이스테린이 말했다.

아랍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뭐야? 부즈룸이 처음부터 왜 이 따위야?’ 씨-이스트는 생각했다.

“쟈킬. 이 놈 죽여도 되는 것 맞아? 얘 완전 외국인인 것 같은데? 잘못죽였다가 큰일나는 거 아닌지 몰라.” 남자가 말했다.

“일단 보스에게 물어보자.” 쟈킬이 말했다.

포승줄의 결속이 단단하지 않았고 뒤로 묶인 손을 여러번 비틀자 틈이 벌어졌다. 손이 빠지자마자 씨-이스트는 남자의 머리에 주먹을 휘둘렀다. 남자는 정통으로 맞고 한발 뒤로 물러났지만 쟈킬이 총을 겨누 었다. 그리고 방아쇠가 당겨 졌다. 씨-이스트의 왼쪽 가슴으로 파고 들었고 곧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이 들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고 세상은 흑백으로 보였다.

“안되겠군.” 멀리서 소리가 들려 왔다. 아비토다.

“부즈룸이란 걸 알아서인지 상황 판단이 본래 미스터부보다 너무 대담해. 미스터부답게 행동하도록 아무래도 좀 더 교육을 받아야겠어. 부즈룸을 종료할께.”

########################################

########################################

미스터부는 당시 27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지 3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그가 내전중이었던 예멘령의 소코트라섬으로 사전 답사를 간다는 것은 격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UC를 대표해서 예멘으로 외국 사절로서 대접을 받는 것이었거든요. 위험한지 어쩐지도 알 수 없는 곳의 조사를 신입을 막 벗어난 미스터부에게 맡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죠. 그런 그가 중책들을 맡을 수 있었던 건 초기 연합 토큰을 주장한 멤버였거든요. 그는 앱 개발 회사 클럽 오우너에 입사해서 그 경력을 인정받아 UC 사무국으로 진출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는 디앱 클럽 오우너를 개발한 사람이었고, 자연히 초기 연합 토큰 소유자들과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중책을 어린 나이에 맡게된 이유가 여기에 있죠.

UC가 본사를 소코트라섬으로 옮기기 전에 미스터부가 먼저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컨테이너 상선을 빌려 타게 되었는데, 이 상선이 피랍되버립니다 주변 해역에서 경비중인 가르시의 군함을 만나 구조된다.

이더리움 슈퍼 토큰을 가진자와 못가진자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 미국이 더리움 토큰 보유세를 부동산 보유세와 맞먹는 1%까지 올리고 중국이 이더리움을 압수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이더리움 토큰 소유주들이 망명하기에 이른다. UC는 사무국을 아일랜드에 두고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UC 이사이자 예멘 반군의 원수인 가르시가 점령하고 있던 소코트라 섬으로 본사 이전이 결정된다. 가르시는 원양 어업을 겸엄하며 부를 축척한 해적으로 소코트라 섬을 거점으로 삼았다. 쿠데타를 일으켜 예멘의 대통령이 된다. UC의 자금을 끌어들여 아라비역 해역을 평정하게 된다. 하지만 UC의 자금으로 성장한 소코트라에는 UC의 세력이 많았으며 예멘으로부터 독립을 원하게 된다. 가르시는 위성 인터넷을 접하며 이더리움을 알게 되었다.

4

“네가 접속할 VR은 UC의 본사가 있는 예맨과 그 주변 해역이 될거야. 초대 미스터부가 UC 건국을 위해 땅을 매입하던 시기야. 절대 잊어버릴 것 같지 않은 시기와 장소를 VR로 생성해서 토큰을 숨겨둔거지. 거기서 시장 가르시와 친구가 되. 이 VR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니까 시드 워드도 그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너의 오리지널인 미스터부와 절친이었으니 너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리라 생각해.”

“좋은 친구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겠어요.”

“나도 이번에 처음봤는데 바다가 무척 깨끗하더라고. 테러 분쟁 지역이라 사람 손을 덜 탄 것 같아.” 아비토가 말했다.

“거기가 분쟁 지역이에요? VR이니까 문제 없겠죠?” 소년이 말했다.

“시뮬레이션 안에서 죽는다해도 소생시킬 수 있어. 다만 고통은 느끼는 거니까 그런 곤란한 상황엔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 아비토가 말했다.

5

넌 부즈룸의 데이터로 만들어진 AI야. 거긴 네가 태어난 곳인거지. 거기에 있는 소품들은 네가 기억에 있는 것과 똑같거나 그 기억들이 조합되면 생길 수 있는 것들로 되어 있어. 네가 묵었던 방을 떠올려봐

6